

‘是不是VP’의문문의 교육을 위한 한국어 대응관계 고찰

이은경*

<目 次>

1. 서론
2. 기존 연구와 국내 문법서의 현황
 - 1) ‘是不是VP’의문문의 기존 연구
 - 2) 국내문법서의 ‘是不是VP’의문문 제시 현황
3. ‘是不是VP’의문문의 한국어 대응형식
 - 1) ‘是不是VP’의문문의 예문분석과 한국어 대응형식
 - 2) 한국어 대응형식 ‘-지 않-’, ‘-것 아니-’의문문
4. 결론: 교육적 제시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현대중국어 ‘是不是VP’의문문의 통일된 한국어 대응형식을 고찰하여 명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의문문의 변별력 있는 교육에 도움을 주고자 함이다.

일반적으로 『這是不是你的書?』, 『他是不是韓國人?』와 같은 ‘是不是NP’형식의 의문은 문장의 유일한 중심동사 ‘是’의 긍정과 부정형식을 사용한 의문형식으로 이를 정반의문문(正反問)으로 간주하는 것에는 대부분 일치된 의견을 보인다. 그러나 이와 동일하게 ‘是不是’가 사용되는 ‘是不是VP’의문문은 통사·의미적으로 정반의문문과 구별되는 특징에 따라 점차 독자적인 의문형식으로 연구되어 왔

*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문화학부 강사

다. 본고가 논의하고자 하는 ‘是不是VP’의문문의 예는 다음과 같다.

- (1) 你是不是喜歡我?
 ③당신 나를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너 나 좋아하니?
- (2) 是不是你沒帶詞典?
 ②당신이 사전을 가지고 오지 않았지요?/
 ㉠당신 사전 안 가져온 거 아니에요?

(1),(2)의 예문과 한국어 해석은 각 문법서(각 예문의 작은 번호는 문법서에 대한 표기이며 각 문법서는 2장 2절의 〈표1〉에 제시됨)에서 인용한 것인데 동일한 문장에 대해 한국어 대응형식이 달리 주어지고 있다. 국내문법서 전반적인 대응상황은 이보다 더 다양한데, 본고는 ‘是不是VP’의문문의 형식·의미적인 특수성으로 인하여 한국어 대응 형식의 규정이 간단하지 않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한국어에는 ‘是不是VP’를 구성하는 ‘是不是’에 직접 대응되는 형식(중심동사VP를 따로 가진 계사 ‘이다’의 선정식 의문문)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형식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어 대응형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丁雪歡(2008)에 의하면 중국어 모국어 화자들의 경우 ‘是不是VP’의문문의 사용빈도가 ‘是不是N’보다 상대적으로 높는데 반해, 중국어 제2언어 습득에 있어서는 이러한 의문문의 상대적인 사용빈도의 우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이는 ‘是不是VP’의문문형식의 언어 간 보편성이 ‘是不是N’에 미치지 못하여, 학습자들이 정반문을 사용하지 않고 동의의 시비문(是非問)을 사용하게 된 결과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¹⁾ 이와 같은 논의는 국내의 중국어문법서에 ‘是不是VP’의문문의 대응형식이 일관되게 제시되지 못하고, 대부분 ‘嗎’, ‘吧’ 등 타의문문 형식과 동일한 의미로 풀이되어 있는 실정과 문제점을 어느 정도 짐작 가능하게 한다. 실제로 13권의 문법서를 조사한 결과, ‘是不是VP’의문문의 의미에 대해, ‘확인’, ‘예측확인’, ‘예상확인’, ‘진일보된 확인’, ‘동의구함’, ‘상의하는 말투’ 등 다양한 화용의미가 제시되고, 실례에 대한 한국어 대응형식은 대부분이 ‘-니?’, ‘-니까?’, ‘지(요)?’, ‘맞

1) 丁雪歡(2008) 참고.

아요?' 등이 제시되고 있어서 '嗎', '吧', '對吧' 등 기타의문문과 변별력 있는 의미의 이해와 사용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본고는 '是不是VP'의문문의 이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이것의 의미에 합당한 한국어 대응형식을 분석하여 통일되고 일관되게 명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논의를 집중하고자 '是不是'가 술어동사 앞이나 문두에 사용된 '是不是VP'형식의 의문문으로 연구대상을 제한하였으며, '是不是NP'형식, '是不是'가 문미에 놓인 'VP, 是不是'형식, 그리고 문장이 아닌 절(주어, 목적어 또는 접속절)로써 문장에 포함되는 것은 논의대상에서 제외하였다.²⁾

논의의 순서는 2장에서 '是不是VP'의문문의 통사·의미에 대한 기존논의와 국내의 문법서 13권의 이러한 형식의 소개와 번역상황을 조사하여 문제점을 논의하고, 3장에서는 문맥을 고려한 '是不是VP'의문문의 한국어 대응형식을 분석하여 이러한 형식의 화용적 의미에 더 적절한 한국어 대응형식이 '-지 않-'과 '-이/가 아니-'의 부정의문문임을 밝히며, 4장은 결론과 함께 교육적 설명안을 제시한다.

2. 기존 연구와 국내 문법서의 현황

1) '是不是VP'의문문의 기존 연구

'是不是VP'의문문의 통사와 의미에 관련된 주요한 기존논의는 주로 이러한 의문문의 의문문체계에서의 위치정립에서 출발하여, 이러한 의문문이 일반적인 정반의문문과 통사·의미가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고, 응답관계, 문장에서의 '是不

2) 이들을 제외한 것은 이들이 '是不是VP'의문문의 비교적 통일된 의미와는 다른 의미를 가질 것이라는 생각에 의해서이다. 方梅(2005)에 의하면, 'VP, 是不是'는 그 기능이 '是不是VP'와 구별되며 청대부터 지금까지 줄곧 하나의 독립된 문장형식으로 존재해 왔다. '是不是VP'는 청자에게 긍정 또는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지만, 'VP, 是不是'는 이러한 강제성의 요구를 갖지 않는다. 두 형식이 나타내는 信疑정도가 다르고 기능도 다르다. 'VP, 是不是'는 청대 소설의 대화에서의 용법과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문미의 '是不是'는 청자에 대한 긍정과 인정을 얻고자 하는 기대를 나타낸다. 본고는 또한 문장 내에 절로써 포함관계에 있는 경우는 주절의 형식과 의미에 따라 그것의 의미경향 역시 단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논의에서 본 논의에서는 제외하여 다루고자 하였다.

是'의 위치, 의문점, 의문정도와 의미의 연관성을 다루었으며, 최근의 논의에는 맥락을 통한 화용의미와, '是不是'자체의 담화표지로서의 허화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이어졌다.

呂叔湘(1999[1980])은 '是不是VP'를 시비의문의 한 형식으로 간주하여 동사 '是'를 사용한 시비의문의 유형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비의문에 대한 응답은 '是[的]', '不是'라고 하였다.

- (3) 你是不是去游泳? 不是。
너 수영하러 가는 거 아니야? 아니야.

呂叔湘(1985)에서는 '是不是VP'를 시비의문의 하위부류인 정반의문의 부분에 소개하고, '是不是'는 문미 외에도 문두에도 놓여, 문장전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며, 또한 문장의 중간에 놓을 수 있는데 이 때 의문점(疑問點)은 '是不是'의 뒷부분에 있다고 하였다.

- (4) 是不是你明天到車站去買票?
네가 내일 기차역에 가서 표 사는 거 아니야?
你是不是明天到車站去買票?
너 내일 기차역에 가서 표 사는 거 아니야?
你明天是不是到車站去買票?
너 내일 기차역에 가서 표 사는 거 아니야?
你明天到車站去是不是買票?
너 내일 기차역에 가서 표 사는 거 아니야?³⁾

설명에 따르면 '是不是'가 문두에 있든지 중간이나 문미에 오든지, 만약 문미강세 외에 그 앞의 어떤 성분(대부분은 '是不是'바로 뒤의 성분)에 강세가 있다면 의문점은 바로 이 성분에 있다. 이와 같이 '是不是VP'의문문은 문장 전체가 의문점일 수도 있고 '是不是'에 후행하는 성분만이 의문점일 수도 있다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3) 한 익명의 심사위원의 제안대로 이들을 의문점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是不是'의 뒤의 성분이 의문점일 때 한국어는 대응형식은 변하지 않으나 강세(굵은 글씨)에 변화를 주는 것 같다. 그러나 문장전체가 의문점일 때에는 이러한 강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陳昌來(1993)는 '是不是', '對不對' 등을 반신반의의 정반의문문의 문법수단으로 설명하고, 이를 이용해 질의하는 문장은 화자가 어떤 사실이나 상황에 대해 비교적 확신을 갖는 예상을 나타내며, 질문을 제기하는 것은 더 나아가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陶煉(1998)은 '是不是VP'의문문을 구성하는 문법표지인 '是不是'는 자체의 구성과 문법기능이 모두 정반의문문중의 긍정부정 중첩구조, 특히 '是不是NP'와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고, '是不是VP'의문문의 통사구조와 화용의미 등 각 방면에서 정반의문문과의 차이가 현저함을 논의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是不是VP'형식을 시비문(是非問), 특지문(特指問), 정반문(正反問), 선택문(選擇問)의 네 가지의 문문에 포함되지 않은 독립적인 '是不是'의문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이는 또한 청유문의 어기를 표현하는 중요한 형식이다.

丁力(1999)에서도 이러한 '是不是VP'의 모순의문(矛盾問, 즉 정반문)의 특징에 대비되는 단항의문(單項問, 즉 시비문)의 특징을 논하였다. 그는 의문문체계 전반을 고려할 때 '是不是'의문문과 시비문, 특히나 판단동사 '是'를 가진 '是'자 시비문과의 관계가 정반문보다 더 밀접해 보인다고 하였다.

劉月華(2004[2001]: 792)는 이를 '是不是'를 이용한 정반의문이라고 소개하고, 질문하는 사람이 어떤 사실이나 상황에 대해 이미 비교적 긍정의 추측을 하고, 더 나아가 확인을 구하고자 할 때 이러한 의문문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의문문은 확인의 의미 외에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자 할 때, 상의의 어기, 즉 '.....好嗎'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러한 어기를 나타내는 '是不是'는 일반적으로 서술어 앞이나 주어 앞에 사용하고 문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5) 我們是不是找她談一談?
우리 그녀를 찾아가서 이야기 좀 하지 않을까?
是不是我去幫助他一下?
내가 가서 그를 도와줄까?

邵敬敏·朱彥(2002)은 '是不是VP'의문문 의미의 문맥 의존적인 긍정성 경향을 논하였는데, 이러한 의문문이 정반문의 중립적 의미경향과 달리 현저한 긍정성

의미경향을 나타냄을 설명하고, 일반적인 정반의문, ‘吧’자 시비의문문과의 신의도(信疑度, 확신의 정도)차이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정반의문의 경우 중립(무경향)적인 의미를 나타내거나 긍정과 부정이 각각 반반의 경향성을 가질 때 ‘V不V’의 형식을 선택한다. 그러나 ‘是不是VP’의문문은 일반적으로 화자가 사건의 존재여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면 사용하지 않는다.

- (6) a. 你去不去北京?
너는 북경에 가니 안가니?
b. 你是不是去北京?
너는 북경에 가는 거 아니니?
- (7) a. 她漂亮不漂亮?
그녀는 예쁘니 안 예쁘니?
b. 她是不是很漂亮?
그녀는 예쁘지 않니?
- (8) a. 你會不會彈琴?
너는 피아노를 칠 줄 아니 못 치니?
b. 你是不是會彈琴?
너는 피아노를 칠 수 있지 않니?

a격식은 긍정과 부정의 가능성이 모두 대등하며 경향성을 나타내지 않지만, b격식은 명확한 긍정성의 경향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러한 ‘是不是VP’의 긍정적 경향은 일정한 상·하위 문맥이나 화용상황을 통해 비교적 정확하게 드러난다.⁴⁾

邵敬敏·朱彥(2002)은 또한 ‘是不是VP’격식의 화용적인 의미유형을 다음 네 가지로 제시하고 신의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 A. 已知事實, 要求認定.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 확인을 요구한다.
B. 合理推論, 企求證明. 합리적으로 추론하여, 증명을 구한다.

4) 邵敬敏·朱彥(2002)은 ‘是不是VP’의문문의 긍정의 경향을 증명하기 위해 曹禺, 老舍, 方方, 高行健, 王安憶와 王朔 등의 희곡과 소설, 총 92만자의 코퍼스에서 ‘是不是VP’의문문 202개를 검색해 통계를 진행하였는데, 그 중 긍정경향을 지닌 것은 186개로 전체의 92%에 달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是不是VP’의문문이 신(확신)과 의(의문)가 반반인 일반적인 정반의문문과 달리, 이미 알고 있는 사실 또는 기존 관점을 토대로 긍정성의 경향을 나타내는 ‘咨詢型問句’(상의형, 상담형 의문)이라고 하였다.

- C. 既定主張, 追求認同. 이미 주장을 정하고 동의를 구한다.
- D. 提出建議, 征求同意. 건의를 제기하고, 동의를 구한다.

설명에 따르면, 이들의 화용특징은 모두 명확한 긍정성의 의미경향을 가지고 정반 의문의 형식을 통해 청자의 의견을 추구하며 게다가 긍정의 어기를 완화시켜 완곡 하고 예의가 있어 보이게 한다.

方梅(2005)는 '是 不是'가 문미에 출현하거나 동시에 독립된 형식으로써 존재하 여 의문의 기능이 축소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기존연구가 이러한 의문용법과 비의 문용법, 강의문어기와 약의문어기 사이의 구분과 연관성을 더 설명하지는 못했 다고 지적하고, '是 不是'가 담화기능이 강한 형식으로 공시체계에서 점차 담화표지 로 허화(문법화)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하였다.

기존의 논의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是 不是VP'는 일반적인 정반의문문과 통사·의미적으로 구분되는 독자적인 특성을 가진 의문문 형식으로 구분할 수 있 다는 것, 그리고 확신을 갖는 예상, 확인요청, 긍정추측, 동의요청, 긍정적 경향 등의 의미를 나타내며, 긍정성 경향과 신의도(확신의 정도)에 있어서 정반의문문, '뻔'의문문과 구별되는 것으로, 의미적으로 동일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 한 의문문의 의미는 문맥이나 담화의존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특징이 이를 구성하는 '是 不是'가 담화표지로서 그 의미가 더욱 더 허화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국내문법서의 '是 不是VP'의문문 제시 현황

본고는 '是 不是VP'의문문이 한국국내의 학습자들에게 어떻게 설명되고, 이것의 의미에 어떤 한국어 형식이 대응되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국내의 중국어문법서 를 조사하였다. 문법서 13권의 '是 不是VP'의문문의 번역에 사용된 한국어형식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 타의문형식과 변별력이 없는 한국어형식으로 번역되어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문법서별 설명과 예문, 그리고 한국어 대응형식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⁵⁾

문법서	분류 또는 설명	예문	한국어 형식
①	어떤 사실을 확인하고 싶을 때	'是不是'你來找過我? 我們是不是坐飛機去?	너 날 찾으러 왔었니? 우리 비행기 타고 갑니까?
②	'是不是'의문문	'是不是'你沒帶詞典? 你們'是不是'要出去散步?	당신이 사전을 가지고 오지 않았지요? 너희들 산책하러 가려하니?
③	정반의문문 '是不是'의 경우 목적어가 오면 '是不是+O'와 '是+O+不是' 모두 사용가능하다.	你是不是忘了? 你是不是喜歡我?	너 잊어버린 거지? <u>당신 나를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u>
④	진일보로 어떤 상황을 증명하려 할 때	'是不是'你來找過我? 我們是不是坐汽車去?	당신이 나를 찾았던 것이 맞나요?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이 맞나요?
⑤	정반의문문	'是不是'你先到?	내가 먼저 도착하는 거야?
⑥	의문문의 형식 문두, 문중, 혹은 문미에 '是不是'를 첨가한다.	'是不是'明天開會? 他'是不是'很認真?	<u>내일 회의하지 않아요?</u> 그 사람은 아주 열심히지요?
⑦	예측을 다시 확인할 때	你'是不是'不太喜歡吃壽司? '是不是'昨天的演出非常精彩? 你'是不是'最近不太開心?	너 초밥 별로 좋아하지 않니? 어제 공연이 아주 다채로웠습니까? 너 요즘 별로 즐겁지 않지?
⑧	상대에게 자신의 예상에 대한 확인을 구하기 위해	昨天的晚會'是不是'特別熱鬧? '是不是'你丟了一塊手表?	어젯밤 파티는 대단했지요? <u>시계를 잃어버리신 거 아닌가요?</u>
⑨	어떤 사실이나 상황에 대해 이미 비교적 긍정적인	你們'是不是'明天動身? 你們明天'是不是'去頤和	너희들은 내일 출발하지? 너희들은 내일 이화원에 갈꺼지?

5) 각 참고 문법서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 ① 원종민, 『핵심중국어 문법』, 제이플러스, 2003, p.40.
- ② 김종호, 『도표로 보는 정통 중국어 문법』,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7, p.233.
- ③ 임영택, 『중국어 핵심문법』, 제이앤씨, 2013, p.145.
- ④ 조영신 저·이영희 역, 『HSK 중국어 문법개요』, 학교방, 2005, p.241.
- ⑤ 한민이, 『맛있는 중국어 어법』, jRC중국어연구소, 2014, p.195.
- ⑥ 강석진·이수진, 『신선한 중국어문법』, 신아사, 2013, p.344.
- ⑦ 김진아·차오유링, 『중국어 문법 무작정 따라하기』, 길벗 이지톡, 2004, pp.35-36.
- ⑧ 相原茂·石田知子·戶沼市子 저, 박귀진 민병석 해설, 『왜? 라는 질문에 속시원히 대답해주는 중국어 문법책』, 시사중국어사, 2001, p.128.
- ⑨ 劉月華 등 저·김현철 등 역, 『실용현대한어어법(하)』, 송산출판사, 2005, pp.426-427.
- ⑩ 류기수, 『울인 중국어문법』, 시사차이나사, 2003, p.826.
- ⑪ 문정아, 『문정아가 그려준 중국어 어법 교과서下』, 제르나, 2007, p.18.
- ⑫ 徐昌火 저·조문수 역, 『중국어어법사전』, 넥서스, 2004, p.30.
- ⑬ 허성도, 『현대중국어 어법의 이해』, 사람과 책, 2005, p.537.

문법서	분류 또는 설명	예문	한국어 형식
	추측을 하면서 다시 확인하려고 할 때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면서 '해도 되겠습니까?'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런 종류는 문미에 사용할 수 없다.	園? '是不是'你們不打算出去旅行了? 我們'是不是'找她談一談? '是不是'我去幫助他一下?	너희들은 여행을 안 갈꺼지? 우리들이 그녀를 찾아가서 의논 좀 해 볼까요? 내가 그를 좀 도와주러 갈까요?
⑩	어떤 상황에 대해 진일보된 확인을 요할 때 상대방의 동의를 물을 때 사용. 상의의 기분을 주며 이때에는 문장 끝에는 놓이지 못한다.	他們'是不是'要出去散步?對、是 '是不是'你沒帶詞典? '是不是'我們找她談談? 好 (좋아요)、不用 (그럴 필요 없어요) 我們'是不是'和她商量商量?	그들은 산책하러 나가려는 거예요 아니예요? 당신 사전 안 가져온 거 아니예요? 우리가 그녀를 찾아가 이야기 해요? 우리가 그녀와 상의해야지 되요?
⑪	정반의문문으로써 답하는 사람이 그 중 한 가지를 고르게 하는 의문문	你'是不是'喜歡我?	너 나 좋아하니?
⑫	상대의 의견을 묻기도 한다. 일종의 상의하는 말투	'是不是'他們明天就回國了? 他們'是不是'明天就回國了? 你'是不是'在吹牛? 你在吹牛, '是不是'?' 我們'是不是'去幫他一下?~건의하는 것으로 '是不是'가 문장 맨 뒤에 놓일 수 없다.	그들은 내일 귀국합니까? 너 지금 허풍떨고 있는 거니? 너 지금 허풍떨고 있는 거 맞지? 우리들이 가서 그를 좀 도와줄까?
⑬	'是不是' 판단의문문 화자는 묻는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미 알고 있다.	他'是不是'上北京大學了? 我們'是不是'明天去電影院?	그는 베이징 대학에 가게 되었지요? 우리는 내일 영화관에 가지요?

〈표1〉 국내 문법서의 현황 조사

문법서에서의 설명과 대응형식의 현황은 '是不是VP'의문문의 단순하지 않은 통사·의미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이러한 의문문의 명칭이나 분류가 다양한데, '是不是'의문문(②), 정반의문문(③,⑤,⑪ 등), 판단의문문(⑬)으로 소개되어 있다. 의미에 대하여는 사실 확인, 진일보로 상황 증명, 예측 확인, 예상 확인, 긍정적인 추측 하에 확인, 동의 구함, 상의 어투, 화자의 사실

긍정 등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정리하면 확인, 긍정, 추측, 동의, 상의 등의 의미로 개괄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대응되는 한국어 의문형식도 ‘니(까)?’, ‘까(요)?’, ‘-지 않아요(않았지요)?’, ‘지(요)?’, ‘거 아니에요(아닌가요)?’, ‘맞나요?’, ‘거야?’, ‘거예요?’, ‘아니예요?’, ‘해요?’, ‘거니?’, ‘거 맞지?’ 등으로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부터 ‘是不是VP’의문문이 단순하지 않은 다양한 화용적 의미를 가진 의문형식임을 알 수 있고, 또 한편으로 이것의 한국어 대응형식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된다. 한국어 대응형식이 대부분이 중국어의 타의문문(嗎?, ‘吧?’, ‘對嗎?’, ‘是嗎?’, ‘不是嗎?’, ‘對吧?’ 등)의 의미와 변별력이 없으므로 인해, 이러한 의문문의 의미의 이해와 사용에 있어서 효율성이 의문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사실상 선후행문과 맥락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러한 의문문의 의미경향은 대부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⁶⁾ 그리고 문장단위의 제시와 설명 위주의 문법서와 문법교수에 있어서 이러한 ‘是不是VP’의문문에 대하여 더 큰 맥락 속에서의 의미를 확인하고 제시하는 데에는 시·공간적 제약이 존재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의 한국어 대응관계의 파악과 교수·학습이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고는 효율적인 교수·학습을 위해 ‘是不是VP’의문문의 더 큰 맥락에서의 의미를 확인하고 이들의 전체적인 의미에 합당한 통일된 한국어의 대응형식을 찾고자 한 것이다.

3. ‘是不是VP’의문문의 한국어 대응형식

1) ‘是不是VP’의문문의 예문분석과 한국어 대응형식

본고는 ‘是不是VP’의문문의 의미를 문맥을 고려해 파악하여 한국어대응형식을

6) 邵敬敏·朱彦(2002)은 ‘吧’자 시비문의 의미경향은 문맥에 의존적이지 않으며 자체의 표지를 빌어 그것의 신의도를 확정할 수 있다. 그러나 ‘是不是VP’정반문은 문장자체만으로 의미경향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소수에 그치며, 대다수가 선후행문이나 문맥의 제약에 의존한다.

찾고자, 이러한 형식의 화용의미를 집중적으로 논의한 邵敬敏·朱彦(2002)의 '是不是VP'예문을 분석하였다. 邵敬敏·朱彦(2002)에는 담화의 상황을 알 수 있거나 문맥이 주어진 '是不是VP'의문문의 예시가 다수 주어졌으며, 간단한 문장만 제시된 경우라도 그 출처가 분명하여 말뭉치를 통해 맥락을 검색할 수 있는 것들이다. 본고가 문맥을 고려하며 한국어 대응형식을 고찰하기에 적절한 여건을 제공해주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이러한 '是不是VP'의문문이 '嗎'와 '吧'에 해당하는 '-니까?', '-지요?', '맞아요?' 등과 대응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임을 논의하기 위해 邵敬敏·朱彦(2002)에 제시된 '是不是VP'의문문의 각 의미부류와 각각의 예를 하나씩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⁷⁾

- A.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 확인을 요구한다.
我以爲他是開玩笑，先還不信。他說真是離了。還扭頭叫他老婆証實“是不是離了?”(王朔《過把癮就死》)
헤어진 거 아니야?
- B. 합리적으로 추론하여, 증명을 구한다.
我去外屋找了一圈，找着了空杯子，忍着氣問他：“是不是你喝了?”(王朔《浮出海面》)
네가 마신 거 아니야?
- C. 이미 주장을 정하고 동의를 구한다.
牛大姐痛斥南希，“你想錯了！什麼都不遵守你也就無權擁有！噢，我這詞兒是不是可以當流行歌曲的歌詞?”(王朔《編輯部的故事》)
유행가의 가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 D. 건의를 제기하고, 동의를 구한다.
牛大姐迫不及待地起身：“不早了，我看，咱們是不是該回去了?，江導很忙，讓他們忙吧。”(王朔《編輯部的故事》)
우리 돌아가야 되지 않니?

'是不是VP'와 '嗎'의문은 맥락이 주어진 경우 그 화용적 차이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며, 위의 예문을 '嗎'나 한국어의 '-니?', '-니까?' 의문문으로써 대체할 수 없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A의 예문 “是不是離了?”를 “離了嗎?”에 해당하

7) 예문 전체에 대한 번역은 첨부한 부록의 15,16,18,20번 예문을 참고 할 것.

는 “헤어졌니?, 헤어졌어요?, 헤어졌습니까?” 등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문맥을 고려할 때 이미 ‘헤어졌다’라고 선언한 사람이 아내에게 다시 확인하는 방식으로는 “헤어졌니?”라는 의문은 화용적 의미에 부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지?’의문의 ‘헤어졌지?’를 대응시킬 경우는 문맥에 적절해 보인다. 이는 ‘지?’의문 역시 이미 알고 있는 사실(긍정하는 사실)에 대한 확인의 의미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위의 ‘是不是VP’예들 모두 ‘吧’의문문으로 대체가 가능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是不是VP’의문과 ‘VP吧’의문이 문맥이나 화용적 요소로써 구분하기 쉽지 않은 유사한 의미를 가진 것임을 의미하며, 이러한 이유에 의해 중국어 ‘是不是VP’의문에 대한 한국어의 대응형식이 ‘-지?’의문으로 많이 보이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를 간단하게 ‘지?’의문과 동일시하여 대응시킨다면, 일반적으로 알려진 ‘-지?’의문의 대응형식인 ‘吧?’와 ‘是不是VP’가 동일한 의미를 전달하는 이형동이의 의문문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사실상 ‘吧’자 시비문의 확신의 정도는 ‘是不是’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 의미 역시 다르지만 이러한 대응관계 속에서는 이들이 동일시되는 것이다.⁸⁾ 본고는 이들이 동일시되면 의문문간 변별력이 없음으로 인해 ‘是不是VP’의문문 특유의 의미의 학습과 올바른 사용에 전혀 도움을 줄 수 없으므로 이러한 대응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관점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 입각하여 예문의 분석과정에서 중국어의 ‘嗎?’, ‘吧?’, ‘對嗎?’ 등 의문에 대응될 수 있는 한국어 ‘-니(까)?’의문, ‘-지?’, ‘맞아?’ 식의 의문을 제외하고 ‘是不是VP’용례의 한국어 대응관계를 고려하였다. 邵敬敏·朱彥(2002)의 예문 총 31개를 분석하였는데⁹⁾, 이들 ‘是不是VP’예문과 한국어 번역은 부록에 첨부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어의 부정의문문인 ‘-지 않’과 ‘-것 아니’의문문의 의미

8) 邵敬敏·朱彥(2002)에 의하면 ‘吧’와 ‘是不是VP’정반문의 확신정도(信度)는 다음과 같다.
75% < 吧자 시비문의 확신정도 < 100%
50% < ‘是不是VP’정반문의 확신정도 < 75%

9) 邵敬敏·朱彥(2002)의 예문 중 ‘是不是NP’(我是不是你心目中的那个人?)와 ‘VP, 是不是’(你在談戀愛是不是?) 형식, 그리고 ‘是不是VP’형식이지만 문장내 포함관계에 있는 것(我記不清她是不是從里屋出來的)들은 제외하고(동사 ‘問’의 목적으로 사용된 것은 의미적으로 직접 의문형식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예문의 수에 포함되었다.) 본고의 논의대상인 독자적인 ‘是不是VP’의문문으로 볼 수 있는 것들만 총 31개로 파악되었다.

특징이 '是不是VP'의 그것에 해당되는 것임을 확인하고 이들 간 대응관계가 성립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앞선 절의 ③,⑥,⑧,⑩번 문법서의 밑줄 친 4개의 한국어 번역에도 사용되어 있는 것으로, 이들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한국인의 직관이 어느 정도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한국어 대응형식 '-지 않-', '-것 아니-'의문문

이제부터는 '是不是VP'의문문과 부정의문문 '-지 않-'과 '-것 아니-'형식과의 대응관계를 일반화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한국어 '-지 않-', '-것 아니-'의 의미(사용양상)를 살펴봄으로써 확인하려고 한다.

한국어에서 '-지 않-'의문문은 확인의문(김동식(1981)), 부가의문(장석진(1984)), 부정의문(장경기(1986,1989,2012)) 등의 부류로써 논의되어 왔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9) (가) 영이가 먹지 않니?
- (나) 영희는 갔지 않니?

김동식(1981)은 (가)는 보통의 부정의문문일 수도 있고("영희가 안먹니?"의 의미), 확인문으로써 '-아니'가 부정의 뜻으로 쓰인 것이 아니며 '영이가 먹는다'는 사실을 화자가 알고 있으면서 확인하려고 물을 때 사용된다고 보았다.¹⁰⁾ 장경기(1986)에서는 이를 통사적으로는 부정의문문이며 의미론 및 화용론적으로는 화자의 긍정 전제를 청자에게 확인하거나 동의를 구하는 이차전제용법이라고 하였다. 특히 (나)와 같이 시제표지 '았'이 '지' 앞에 실현된 부정의문문은 다른 부정의문문과는 달리 이차전제용법으로만 사용되는 전용적 이차전제용법이라고 하였다.¹¹⁾ 장경기(1989)에 의하면 (나)는 '영희는 갔음'을 화자가 진술하는 '진

10) 김동식(1981)은 이러한 확인문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의 의식은 자신이 아무리 확신을 갖고 있다 해도 남에게 곧바로 나타내기를 주저하는 경향을 갖는데, 그것은 남에게서 적의에 찬 반발을 받지 않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남을 존중하는 자기의 겸손 때문일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다.

11) 장경기(1989)에서는 이와 같은 의문의 간접화행은 진술, 감탄 등 적절한 상황에서는 여러

술(statement) 또는 좀 더 강한 '감탄'(exclamation)의 화행을 갖는다. 이것은 이미 부정의 의미를 상실한 관용어법(convention)이 된 것이다. 이 때는 '-잖니'와 동일한 화행을 갖는 것으로 파악된다. 본고는 사실상 이러한 '-지 않'의문문은 일반적인 부정을 나타내는 외에 사실에 대한 긍정의 추측이나 어느 정도의 확신을 나타낼 수도 있고, 장경기(1989)에서와 같이 '-잖'으로 축약되어 진술이나 감탄의 화행, 즉 반어적인 의미도 나타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¹²⁾ '-지 않'의 이러한 중의는 화용적인 문맥을 통해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영유아를 양육하는 두 엄마의 대화)

(10)A: 지호가 오늘은 밥을 많이 안 먹었어.

B: 어?(의외) 지호는 밥 잘 먹지 않아? / 어? 지호는 밥 잘 먹잖아.

(11)A: 윤이는 요즘 밥을 안 먹으려고 해, 지호는 어때? 지호는 밥 잘 먹지 않아? / * 지호는 밥 잘 먹잖아.

B: 아니 지호도 잘 안 먹어.

(10B)의 '-지 않'의문문은 '지호는 밥을 잘 먹는다'는 반어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고, (11A)의 '-지 않'의문문은 '잘 먹는 것 같은' 청자의 믿음이나 추측을 확인하고자 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적 상황에서 전자는 '-잖아'로 축약형이 가능하지만 후자는 '-잖아' 축약형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¹³⁾ 중국어와

가지 다양한 화행을 갖는데, 이점은 비전제 용접 및 일차 전제용법의 부정의문문의 간접화행이 극히 제한적인 점과 비교할 때 이차전제용법의 부정의문문이 갖는 주목할 만한 화용론적 특징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유형의 부정의문문은 질문question이라는 화행을 기본적으로 수행하면서도 그밖에 여러 가지의 화행speech act을 수행하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쓰임새의 다양함이 그동안 이러한 의문문의 분석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었음을 추정하였다.

12) 장경희(1982)는 다음의 A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러한 의문문을 사용하는 것에 주목하였다.

A: 넌 어디 갔었니?

B: 학교 갔지 않아요?

B의 대답은 B가 학교에 간 것을 A가 알고 있다고 B가 판단한 경우이다. 즉 B와 같은 확인의문문은 수사의문문과 같은 반어적인 효과를 지니게 된다.

13) 손세모돌(1999)은 '-지 않'과 '-잖'은 듣는 이에 대한 직접적인 동의요구인가(-지 않아), 아니면 말하는 이의 일방적인 알고 있음 확인인가(잖아)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의 대응관계 또한 다른데, 전자의 '-지 않-'의문문은 중국어의 '不是……嗎'반어문과 대응되고, 후자의 '-지 않-'의문문은 '是不是VP'의문문의 의미와 대응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이 화용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지 않-'은 많은 경우에 '-잖-'으로 축약될 수 없는 자신만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된다.

안윤미(2007: 19-22)는 한국어 부정의문문은 화자가 자신의 전제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지 못한 경우에 발화되어 청자로부터 확인을 받고자 하는 소극적인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화행이라고 하였다. 설명에 의하면, 확신의 결여나 정보 부족은 양상소 '겠'이나 종결어미 '니까', 그리고 때로는 '것 같'과 같은 통사구조로 나타나 화자의 명제에 대한 추측의 태도를 드러낸다. 또한 믿음의 정도를 나타내는 양상부사 '혹시', '행여', '만약', '설령' 등과 공기하기도 한다. 다음의 예와 같다.¹⁴⁾

- | | |
|-------------------------|---------------|
| (12) 이리다가 차를 놓치지나 않을까요? | 我們這樣是不是會錯過車? |
| 선생님 혹시 시계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 老師, 您是不是丟了手機? |
|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지 않니? | 現在外面是不是在下雨? |
| 너무 늦어서 지각하지 않겠니? | 太晚了, 是不是會遲到? |

그리고 화자가 자신의 전제가 확실하다고 믿는 경우에도 이러한 소극적 진술기능의 질문이 발화되는데, 이는 청자에 대한 화자의 공손한 태도(politeness strategies)를 나타내기 위한 표현방법으로서의 화행이다.¹⁵⁾ 중국어의 '是不是VP'의문문 역시 긍정적 명제를 완곡한 어기를 통해 전달하는 예의 있는 표현으로써 이와 같은 한국어 예들은 모두 이에 대응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안윤미(2007: 31-38,43)는 드라마와 말뭉치에 나타난 부정의문문 '-지 않니'와 '-것 아니야'의 의미를 분석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이들 부정의문문은 질책·비난·의의제기, 동의요청, 주장강조, 염려, 추측, 공손표현 등의 의미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용언의 어간+지 않니?'는 진술기능 중 소극적 진술의 공손표현(피곤하지 않으세요?)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용언의 어간+것 아

14) 한국어 예시는 안윤미(2007: 19-22)에서 인용하였으며, 중국어 예시는 본고가 제시한 것이다.
 15) 안윤미(2007: 20) 인용.

문의 대응관계가 고려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유학생으로써 한국어 부정의문의 교수를 연구한 Li, Chunyan(2013: 49-59)에는 중국어 '是不是VP'의 한국어 부정의문문과의 관련에 대해 부분적으로나마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是不是VP'의문문의 한국어 부정의문문과의 대응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다. 그는 한국어 부정의문문의 의미기능이 '명령', '요청', '제안', '불만 제기', '동조유도', '추측', '확인'으로 제시하고 이 중 '추측'과 '확인'기능의 '-는 것 아니야(아니예요)?', 'N이/가 아닐까(요)?', '-는 것 아니지(요)?', '-는 것 아니겠지(요)?' 등이 중국어의 '是不是……?'와 대응될 수 있다고 보았다.¹⁸⁾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본고에 따르면 '是不是VP'의문문은 다양한 화용의미로 사용될 수 있으며 Li, Chunyan(2013: 49-59)이 한국어의 부정의문의 의미기능으로 분류한 것 중에는 '명령'을 제외한 '요청', '제안', '불만 제기', '동조유도', '추측', '확인기능'을 나타낼 수 있다. 또한 '-것 아니' 뿐만 아니라 '-지 않' 부정의문 역시 '是不是VP'의 의미에 상응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Li, Chunyan(2013: 56)의 연구가 중국인 학습자의 교육을 위한 한국어의 부정의문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었음에도, 다음과 같이 제시된 중국어 '是不是VP'의문문의 예에서는 이러한 화용의미에 대응될 수 있는 것이 한국어 부정의문문이라는 것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¹⁹⁾

- (13) 어제 명동 거리에서 지민과 닮은 사람을 보았다. 오늘 학교에서 마침 지민을 만나서 어제 혹시 명동에 갔었냐고 물어본다.
 我: 你昨天'是不是'去明洞了?我好像看見你了。
 나: 너 어제 명동 갔었니? 나 어제 너를 본 것 같아.

이와 같은 예시를 통해 중국어 '是不是'정반의문문의 확인기능을 소개하였지만, 이러한 확인기능이 한국어의 부정의문문의 의미와 부합되는 것임을 파악하지 못

18) Chunyan(2013: 49-59)은 기타의 A不A의 정반의문문 역시 한국어의 부정의문문에 대응된다고 하였는데, 사실상 본고는 '是不是VP'의문문 외에 기타의 중국어의 정반의문문은 한국어에도 선정의문문의 형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이에 대응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다.

19) 예문은 Li, Chunyan(2013: 56)에서 인용.

하고 이에 대한 해석(이해)은 부정의문(“어제 명동가지 않았니?”)이 아닌 긍정의 문(“어제 명동 갔었니?”)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양상은 한국어의 긍정의문문과는 다른 부정의문문의 화용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이것이 마침 중국어의 ‘是不是VP’의문문의 의미일 수 있음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어 부정의문문의 중국어 ‘是不是VP’와의 대응관계를 명시적으로 고찰한 교육적 논의의 부재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지 않-’과 ‘-것 아니-’가 화자가 명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졌다는 전제 하에 행해지는 질책·비난·이의제기, 불만제기, 요청·제안, 동의요청·동조유도, 주장강조, 염려, 추측, 공손 등의 다양한 화용의미를 나타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고에 따르면 이러한 의미들은 모두 중국어의 ‘是不是VP’ 의문문과 대응될 수 있는 것이다. 각 의미와 한국어, 그리고 대응되는 중국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²⁰⁾

화용의미	용언의 어간+지 않니? 용언의 어간+것 아니야?	是不是VP
질책·비난·이의제기, 불만제기 등	금피 발굴도 날 풀리면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훨씬 효율적인 거 아닌가요?)	天气好了再發掘金塊儿是不是更有效率?
요청, 제안	돈 좀 빌려주지 않을래? 우리 가서 좀 도와주지 않을래?	是不是帮我借点儿钱? 我們是不是去帮一下?
동의요청, 동조유도	나 너무 세심하지 않아? (나 너무 세심한 거 아니야?)	我是不是很細心?
주장강조	동서가 만든 귀걸이가 맘에 드는지 대답이 되지 않았어? (—대답이 된 거 아니야?) 검거보다 예방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검거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喜不喜歡你做的耳環, 是不是我的回答很滿意? 是不是預防比抓人更重要?
염려표현	너 밥도 굶었을 것 아니냐? (너 밥도 굶었지 않니?)	你是不是沒吃飯?

20) 한국어 예문 대부분은 안윤미(2007: 31-38,43)의 드라마와 말뭉치에 나타난 부정의문문의 의미분석표에서 인용하거나 의미가 유지되는 선에서 약간 수정하였고, 요청, 제안에 해당하는 한국어 예문, 팔호안의 한국어 예문, 그리고 중국어 ‘是不是VP’ 예문 전체는 필자가 만든 것이다.

추측	너 혹시 어디다 잃어버린 거 아니야? (너 혹시 어디다 잃어버리지 않았니?)	是不是在哪儿丢了?
공손용법	피곤하지 않으세요? (피곤한거 아니세요?)	是不是很累?

〈표2〉 '용언의 어간+지 않니?', '용언의 어간+것 아니야?'와 중국어 '是不是VP'의 대응관계

이와 같이 한국어의 '-지 않-'과 '-것 아니-'의문문의 의미 대부분이 중국어 '是不是VP'와 대응관계에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다만 다양한 화용의미 전체가 고려되는 과정에서 일부는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고 저런 의미로도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금과 발굽도 날 풀리면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는 정황적으로 질책이나 비난으로도 볼 수 있지만 화자의 긍정적 생각을 예의 있게 전달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또 “검거보다 예방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는 주장강조라고도 할 수 있지만 화자의 생각에 대한 동의나 동조요청으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의미는 '-지 않-'과 '-것 아니-'의 공통적인 의미로도 볼 수 있다. 즉 각 화용의미는 두 가지 형식 모두 가능한 것(원문을 괄호 안으로 바꾸어도 동일한 의미로 파악된다)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 않-'과 '-것 아니-'의 차이에 대하여는 세부적으로 더 논의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이상과 같이 '是不是VP'의문문은 한국어의 '-지 않-'과 '-것 아니-'의문문과 대응관계에 있음을 분석하였다. 이들의 의미는 큰 맥락에서 모두 화자가 명제에 대한 긍정적 전제를 가지고 확인하고, 동의를 구하고, 추측을 얘기하는 표현이며, 이 외에도 다양한 화용기능(제안, 염려, 공손 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4. 결론: 교육적 제시

본고는 '是不是VP'의문문의 국내 문법서에서의 상황을 조사하여 이들의 대응 한국어 형식이 변별력이 없이 주어진 점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러한 의문형식의

의미에 부합하는 통일된 한국어 대응형식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이러한 의문문과 한국어의 ‘-지 않’과 ‘-것 아니’의 부정의문문이 대응관계에 있음을 논의하였다. 즉 ‘是不是VP’의문문과 ‘-지 않’과 ‘-것 아니’의문문은 모두 화자가 명제에 대한 긍정적 전제를 가지고 확인하고, 동의를 구하고, 추측을 얘기하는 공손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응용하여 중국어 ‘是不是VP’의문문을 한국인 학습자에게 교수할 때 제시 가능한 설명과 예시, 한국어 대응형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²¹⁾

설명	예문과 한국어 대응 형식
<p>‘是不是’가 문두나 문장의 중간에 사용되어 ‘是不是VP’형식의 의문문을 구성할 수 있다. ‘VP’는 주어를 가진 문장이나 형용사구, 동사구일 수 있으며,</p> <p>의미적으로 화자가 이미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어떤 사실에 대해, 즉 화자가 어떤 명제에 대한 긍정적 전제를 가지고, 〈확인하고〉, 〈동의를 구하고〉, 〈추측〉을 나타낸다.</p> <p>이에 대한 대답은 ‘是’, ‘不是’일 수 있다.</p> <p>한국어의 대응 형식은 ‘-지 않’과 ‘-것 아니’의문문이 될 수 있다. 한국어의 경우도 긍정응답은 ‘그래요’, 부정응답은 ‘아니요’로 대응될 수 있다.</p>	<p>‘是不是’你來找過我? 너 날 찾으러 온 적 있지 않니? 我們是不是’坐飛機去? 우리 비행기 타고 가는 거 아니에요? ‘是不是’你沒帶詞典? 당신 사전을 안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你’是不是’忘了? 너 잊어버린 거 아니야? 他’是不是’很認真? 그 사람은 아주 열심히지 않니? 你’是不是’不太喜歡吃壽司? 너 초밥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니니? 你’是不是’最近不太開心? 너 요즘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 아니야? 昨天的晚會’是不是’特別熱鬧? 어젯밤 파티는 대단하지 않았니? ‘是不是’你丟了一塊手表? 시계를 잃어버린 거 아닌가요? 你’們’是不是’明天動身? 너희들은 내일 출발하지 않니? ‘是不是’我去幫助他一下? 내가 그를 좀 도와주러 갈까요? 我們’是不是’和她商量商量? 우리가 그녀와 상의해야하지 않을까? 你’是不是’喜歡我? 너 나 좋아하는 거 아니야? 你’是不是’在吹牛? 너 지금 허풍떨고 있는 거 아니야?</p>

〈표3〉 ‘是不是VP’의문문 설명과 대응형식의 교육적 제시안

본고는 ‘是不是VP’의문형식이 한국어의 일반적인 긍정의문이 아닌 부정의문문

21) 각 중국어 예문은 2장 2절에서 보인 국내 문법서별 인용 예문에서 추출하였다.

과 대응관계를 있는 것임을 처음으로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중국어를 배우는 한국인 학습자와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 학습자에 상호적인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어는 '是'자문의 정반의문 형식의 의문문으로 시비문(판정의문)의 의미유형을 표현하지만 한국어의 경우 판정의문문 중에서도 부정의문문이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고는 내용의 전개와 심화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한다. 예를 들어 일부 '是不是VP'의문문이 청유문의 용법으로 쓰이는 경우와 특히 주어와 일인칭 단수인 경우의 상의(건의)용법은 한국어의 부정의문과 대응될 수 없는 점(위의 표의 밑줄 친 문장과 부록의 예문 3번), 그리고 의문초점관계의 여부는 이것과 한국어 부정의문문과의 대응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본고의 관점이지만, '是不是'가 주어와 가진 문장의 문두에 출현할 경우 이러한 것의 의문초점이 주어 S일수도 있고 문장전제일 수도 있는 등의 세부적인 상황 등은 본고의 논의가 부족하며 더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의 논의를 시작으로 한국어 부정의문문과 중국어 의문문에 대한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

〈參考文獻〉

- 국내 중국어 문법서 -

- 강석진·이수진, 『신선한 중국어문법』, 신아사, 2013.
김종호, 『도표로 보는 정통 중국어 문법』,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7.
김진아·차오슈링, 『중국어 문법 무작정 따라하기』, 길벗 이지톡, 2004.
류기수, 『올인 중국어문법』, 시사차이나사, 2003.
劉月華 등 저·김현철 등 역, 『실용현대한어어법(하)』, 송산출판사, 2005.
문정아, 『문정아가 그려준 중국어 어법 교과서下』, 제르나, 2007.
相原茂·石田知子·戸沼市子 저, 박귀진 민병석 해설, 『왜? 라는 질문에 속시원히 대답해주는 중국어 문법책』, 시사중국어사, 2001.
徐昌火 저·조문수 역, 『중국어어법사전』, 넥서스.

- 임영택, 『중국어 핵심문법』, 제이앤씨, 2013.
 원종민, 『핵심중국어 문법』, 제이플러스, 2003.
 조영신 저·이영희 역, 『HSK 중국어 문법개요』, 학고방, 2005.
 한민이, 『맛있는 중국어 어법』, jRC중국어연구소, 2014.
 허성도, 『현대중국어 어법의 이해』, 사람과 책, 2005.

- 한국어 논문 -

- 강원화, 「코퍼스에 기반한 '-잖다'의 화행적 특성 고찰」, 『한국어 의미학』 28, 2009.
 구종남, 「국어 의문문의 화행과 응답 방식」, 『한국언어문학』 제46집, 2001.
 김동식, 「부정 아닌 부정」, 『언어』 6.2, 1981.
 박종갑, 「의문문의 화용적 특성(1)」, 『한민족어문학』 11, 1984.
 성광수, 「국어의 부가의문에 대하여」, 『한글』 N100, 1980.
 손세모들, 「'-잖-'의 의미, 전제, 함축」, 『국어학』 33, 1999.
 안윤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부정 의문문 교육 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신사학위 논문, 2007.
 이현희, 「'-잖-'은 단지 '-지 않-'의 음운론적 축약형인가」, 『한국어학』 23, 2004.
 장경기, 「국어의 부정의문문과 전제」, 『어학연구』 21.1, 서울대학교어학연구소, 1986.
 장경기, 「국어 부정의문문의 통사적 연구」, 『언어』 26.1, 한국언어학회, 2001.
 장경기, 「국어의 부정 의문문과 화행」, 『울산대학교 연구 논문집』 제20-1집, 울산대학교, 1989.
 장경희, 「국어 의문법의 긍정과 부정」, 『국어학』 제11집, 1982.
 장석진, 「국어의 부가의문-의미와 기능」, 『언어』 제9집, 1984.
 장석진, 「화행의 이론과 실제-동문서답」, 『어학연구』 제20권, 1984.
 Li, Chunyan,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부정 의문문의 교육 연구-중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중국어 문헌 -

- 陳昌來, 「從“有疑而問”到“無疑而問”—疑問句語法手段淺」, 『烟台師範學院學報哲社版』, 1993.
 陶煉, 「“是不是”問句說略」, 『中國語文』 第2期, 1998.
 陳穎, 「帶有“是不是”的疑問句的祈使用法」, 『語言學論文選集』, 哈爾濱: 黑龍江教育出版社, 2001.
 丁雪歡, 「留學生漢語正反問句系的中的選擇偏向及其制約因素」, 『世界漢語教學』 第4期,

2008.

方梅, 「疑問標記“是不是”的虛化—從疑問標記到話語語用標記」, 『語法化與語法研究(二)』, 北京: 商務印書館, 2005, 18-33.

劉月華, 『實用現代漢語語法』, 北京: 商務印書館, 2004.

呂叔湘, 「疑問·否定·肯定」, 『中國語文』 4, 1985.

呂叔湘, 「中國文法要略」, 『《呂叔湘全集》第一卷』, 沈陽: 遼寧教育出版社, 2002, 286-288.

邵敬敏·朱彥, 「“是不是VP”問句的肯定性傾向及其類型學意義」, 『世界漢語教學』 3, 2002.

徐盛桓, 「疑問句探詢功能的遷移」, 『中國語文』 1, 1999.

袁毓林, 「正反問句及相關的類型學參項」, 『中國語文』 第2期, 1993.

朱德熙, 『語法講義』, 北京: 商務印書館, 1982.

〈부록: 분석예문 31개〉

1. '是不是'你親自出馬好一点? (王朔《人莫予毒》)
네가 직접 가는 게 좋지 않을까?
2. 你們'是不是'也常受他的欺負? (王朔《編輯部的故事》)
너희들도 자주 그의 무시를 당하는 거 아니야?
3. “篇幅我覺得過長, '是不是'請作者壓縮一下?”陳主編說。“另外有些小地方再做些修改。”(王朔《編輯部的故事》)
길이가 너무 긴 거 같은데, 작가에게 좀 줄여달라고 할까? 그 외에도 일부분 다시 수정하고.
4. “你丫够肥的。”我打量着身穿泳衣的米蘭說。“是不是'腰特顯粗?’”(王朔《動物凶猛》)
“너는 정말 똥똥하구나.” 나는 수영복을 입고 있는 미란을 평가하고 있다. “허리가 너무 두꺼워 보이는 거 아니야?”
5. 你'是不是'覺得我有点低級趣味? 我們勞動人民, 不能比你們搞藝術的。(王朔《浮出海面》)
너는 내가 좀 저급한 취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우리 노동인민은 너희같은 예술하는 사람이랑은 비교가 안 돼.
6. “你說, 陷進你死我活的感情中去'是不是'特傻?”
너 말해봐, 죽자 살자하는 감정에 휘말리는 것이 너무 멍청하지 않니?
7. 你這樣撒謊'是不是'對不起她?
너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 그녀에게 미안하지 않니?

8. “好吧，我看着你。”姐姐說，“看你打一輩子光棍兒。”姐姐看我沉着的樣子可疑，不禁問：“你‘是不是’有了，瞞着不告訴我？”(王朔《浮出海面》)

좋아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을게, 누나가 말했다. 네가 평생 노총각으로 사는 거 지켜볼게, 누나는 내 침착한 모습을 보고 의심스러운 듯 물었다. 너 생겼는데 숨기고 안 알려주는 거 아니야?
9. 石靜瞅了我一眼，把茶杯放在地上，走回去繼續刷牆：“你‘是不是’累了？”“困了。”我說。(王朔《永失我愛》)

석정은 나를 한번 보더니 찻잔을 바닥에 놓고 돌아가 계속 벽을 닦았다. “너 피곤하지 않니?” “졸려.” 내가 말했다.
10. 我是能干，但你們是不是看見有錢人就夸呢？八成是吧？(《北京人：一百个普通人的自述》)

나는 능력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돈있는 사람만 보면 아부 떠는 거 아니야? 80프로는 그렇지?
11. 談畢公事，她問我，‘是不是晶晶到那个團后不太順心？’(王朔《浮出海面》)

공적인 일 얘기를 마치고 그녀는 나에게 물었다. 징징이 그 팀에 들어간 후 그다지 순조롭지 않은 거 아니야?
12. 這情形科長也看出來了，有一天他問我‘是不是司徒和小阮在談戀愛？’(王朔《痴人》)

이러한 상황은 과장도 알아차렸다. 하루는 그가 나에게 물었다. 사도와 소원이 연애하는 거 아니야?
13. “你問問他《東方紅》是什麼？還導演呢！姓江的，你自个說，你剛才上廁所‘是不是’蹲馬桶上？”江導被說得面紅耳赤，結結巴巴：“我是蹲馬桶上，怎麼啦？我那是怕傳染愛滋病。”(王朔《編輯部的故事》)

너 그에게 동방홍이 무엇인지 좀 물어봐. 감독하고는! 장씨인 너가 직접 말해봐. 너 방금 화장실 갔을 때 변기에 위에 앉은 거 아니야? 강감독은 얼굴이 빨개졌다. 말을 더듬으며 변기 위에 앉긴 앉았지, 어때서? 나는 에이즈에 감염될까봐 그런 거야.
14. 我問她平時‘是不是老不在家住’你怎么知道的“我在那个年齡是很樂意扮演无所不知、无所不能的角色。”(王朔《動物凶猛》)

나는 그녀에게 “평소에 자주 집에서 묵지 않는 거 아니냐?”고 물었다. 너 어떻게 알았어? 내가 그 나이일 때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하는 역할을 흔쾌히 연기했는데.
15. 我以爲他是開玩笑，先還不信。他說真是癡了。還扭頭叫他老婆証實“是不是癡了？”(王朔《過把癮就死》)

나는 그가 농담하는 줄 알고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그가 정말 헤어졌다고 말하고 고개를 돌려 그의 부인에게 확인했다. 헤어진 거 아니야?(헤어지지 않았니?)
16. 我去外屋找了一圈，找着了空杯子，忍着氣問他：“‘是不是’你喝了？”(王朔《浮出海面》)

나는 방밖으로 가서 한번 둘러보며 찾았고, 빈컵을 찾았다. 화를 참으며 그에게 물었다. 너가 마신 거 아니야?

17. “我對你一向這樣!”我冲着她气冲冲地說,“以前也一樣!”“不對,以前你不是這樣。”她搖頭,一雙眼睛死死盯着我,“你‘是不是’有点討厭我?”(王朔《動物凶猛》)
나는 너에게 줄곧 이랬었어. 나는 그녀에게 화를 내며 말했다. 예전에도 똑같았어! 아니야 예전에 너는 이렇게 않았어. 그녀는 고개를 저었고, 눈이 뚫어져라 나를 보면서, 너 내가 좀 귀찮은 거 아니야?
18. 牛大姐痛斥南希,“你想錯了! 什么都不遵守你也就無權擁有! 噢, 我這詞兒‘是不是’可以当流行歌曲的歌詞?”(王朔《編輯部的故事》)
우씨언니는 남희를 크게 나무랐다. 너 잘못 생각했어. 아무것도 지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질 권 리조차 없거든. 어머, 나 이런 말 유행가 가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될 수 있는 거 아니야?)
19. 秦仲義: 小王, 這儿的房租‘是不是’得往上提那么一提呢? 当年你爸爸給我的那点租錢, 還不够我喝茶用的呢!(老舍《茶館》)
진중의: 샤오왕, 여기 방세를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해에 네 아빠가 우리에게 준 그 정도 방세 가지고는 우리 차마시는 것도 부족해.
20. 牛大姐迫不及待地起身:“不早了, 我看咱們是不是’該回去了, 江導很忙, 讓他們忙吧。”(王朔《編輯部的故事》)
우씨언니는 매우 황급히 일어났다. 늦었다. 우리 돌아가야 되지 않니? 강감독이 매우 바쁘니 일보라고 하자.
21. 江導, ‘是不是’應該把裙子再撕几个口子, 越破越好, 這樣才能把非洲人民的痛苦和不幸更強烈地表現出來。(王朔《編輯部的故事》)
강감독님 치마를 몇 군데 찢어야 하지 않을까요? 찢을수록 좋지 않아요? 그래야 아프리카 사람들의 고통과 불행을 더 강하게 나타낼 수 있지 않아요?
22. ‘是不是’咱們工藝水平上不去, 設計了造出來却走樣兒?(王朔《編輯部的故事》)
우리 공예 수준이 향상되지 않아서 설계해서 만든게 이렇게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23. 你們這儿的風俗‘是不是’自己必須糟踏自己?(王朔《編輯部的故事》)
이곳의 풍습은 자기가 반드시 스스로를 망치는 거 아니에요?
24. 你小時候尿炕‘是不是’也因為你媽的鼾聲帶着哨音?(王朔《痴人》)
너는 어렸을 때 오줌싸는 거 엄마 코고는 소리에 휘파람 소리 때문인 거 아니야?
25. 你‘是不是’因為革命友誼蛻化成儿女私情, 有点轉不過彎來?(王朔《空中小姐》)
너는 혁명우정이 남녀간 애정으로 타락해서 생각을 고치지 못하는 거 아니야?
26. 不信問他們, ‘是不是’都這么叫?(王朔《一点正經沒有》)
믿지 못하겠으면 그들에게 물어봐, 다 이렇게 부르지 않니?
27. 他‘是不是’和你很熟, ……(王朔《我是狼》)
그는 너와 잘 알지 않니?

28. 沒人管了'是不是'覺得不舒服? (王朔《過把癮就死》)
간섭하는 사람이 없으면 불편함을 느끼지 않니?
29. 你'是不是'覺得我過去特惡劣? (王朔《我是你爸爸》)
너 내가 과거에 매우 악랄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30. 你'是不是'感到正經歷那種真正的、無法溢于言表的深沉痛苦?(王朔《我是你爸爸》)
너는 그런 진정한 언어로써 표현이 안 되는 깊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느끼는 거 아니야?
31. 你'是不是'成心誑我飯吃? (王朔《痴人》)
너 고의로 나의 밥을 뺏어 먹는 거 아니야?

〈中文提要〉

本研究考察了现代汉语‘是不是VP’疑问句的韩国国内语法书上的介绍和例句，发现这个疑问形式的韩国语对应形式无法与别的疑问形式做出辨别的情况，对此提出问题探索了对应汉语‘是不是VP’疑问句意义的韩国语形式。结果发现这样的疑问句与韩国语‘-지 않-’和‘-것 아니-’的否定疑问构成对应。汉语的‘是不是VP’疑问和韩国语的‘-지 않-’，‘-것 아니-’疑问都是问话者具有对命题的肯定态度表示进一步确认，征求同意，表示推测的礼貌疑问。

本研究在这样的认识基础上整理了汉语‘是不是VP’疑问句针对韩国人的提示方案和例句的韩国语对应形式。

本研究的意义在于第一次提出汉语‘是不是VP’疑问句不与韩国语肯定疑问对应而与韩国语的否定疑问对应。这样的论据具有学习汉语的韩国人和学习韩语的中国人提供互相参考的价值。汉语用是字的正反疑问形式表达是非问的语义类型，韩国语则用是非问中的否定是非问作这样的角色。本研究还有不太细致考察的不足。希望从本研究触发能够进一步展开韩国语否定疑问句与汉语疑问句各方面的关系。

關鍵詞: 是不是VP, 韩国语否定疑问, 疑问句的肯定倾向, 韩国语‘-지 않-’疑问, 韩国语‘-것 아니-’疑问

이 논문은 2016년 1월 10일에 접수되어 2016년 2월 11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6년 2월 11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